

“생명의 근원 모색하는 철학적 탐구”

독창적 서예회화로 주목받는 허희태 작가

‘심장의 울림’ 예술의 전당 19~27일
이모그래피, 이모스컬처라는 장르 개척
동서양 정신과 회화기법 접목 세계주목



허희태 작가

이모그래피(Emography), 이모스컬처(Emosculpture)라는 새로운 미술장르를 개척한 허희태(62) 작가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심장의 울림’을 주제로 19~27일 이모스컬처로 대중을 만난다.

허 작가는 빠르게 변하는 미술계에서 자신만의 독창적 작품세계를 구축한 몇 안되는 작가로 꼽힌다.

그가 개척한 장르는 동양전통의 서예에 현대회화의 기법을 변용한 것으로 장르의 실험성과 형식성, 조형성, 작품성 등에서 평단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먼저 알려지고 콜을 받았다.

그에게 ‘이모그래피 창시자’라는 별칭을 부여한 도미니언 대학의 켈 데일리 교수는 “그의 작품은 의식적으로 객관적인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응집된 내면의 결정체가 한 순간의 행위를 통해 진정성 있는 예술작품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평했다.

허 작가의 이모그래피와 이모스컬처는 모두 서예(글씨)를 바탕으로 이를 회화적으로 변용한 것으로 동양형식과 정신에서 서양 현대회화의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동서양의 내면과 외면을 보여준다는 평을 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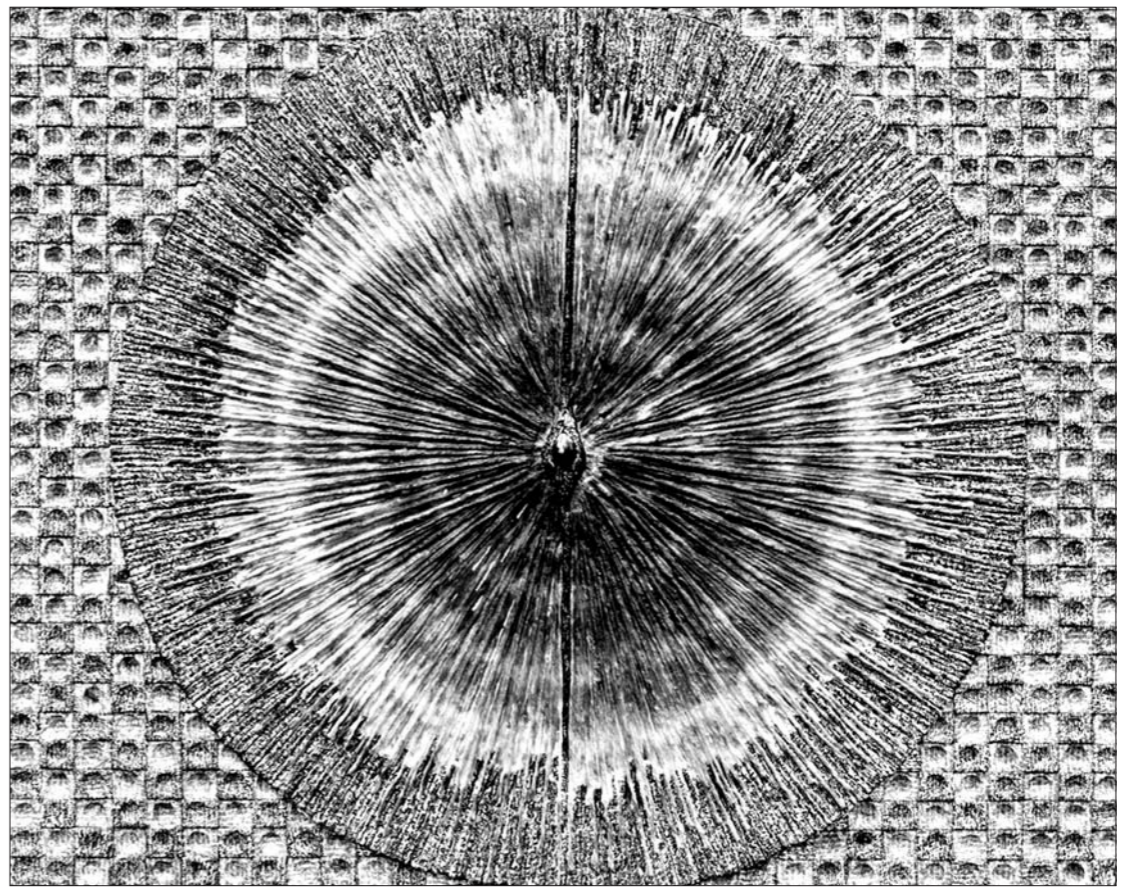
작가는 유년시절부터 서예로 전국 대회를 휩쓸며 일찌감치 서예대가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뛰어넘고자 했다. 회화적 실험에 그치지 않고 이모그래피로 논문을 쓰며 학술적으로도 정립시키려 했다.

2006년 독일문화원에서 이모그래피 작품을 처음 선보인 후 2008년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이모그래피와 서예를 함께 전시하며 한국에 이모그래피를 알렸다. 2009년 미국 버지니아주 올드 메디슨 대학에 초대되면서 국제무대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후 같은 워싱턴주 조지메이슨대, 맨해튼 한국문화원 등 7개월여에 걸친 순회전을 가지며 미국 ABC와 폭스뉴스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후 국립스웨덴 박물관 초대전 등 해외초대전으로 이어졌다. 그는 한지에 철학을 담은 문자들을 세필로 쓰고 그 위에 조형성을 더하는 이모그래피에 이어 지금은 3차원성을 부여한 이모스컬처에 집중하고 있다.

이모스컬처는 고도의 집중력과 엄청난 작업 시간을 요해 100호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7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한지에 수천 수만개의 문자를 쓰고, 다양한 조각으로 만들어진 스트로폼 위에 이를 붙이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런 연후 이들 조각들은 캔버스에 다시 붙이고 이후에 동양채색으로 완성한다.

오늘의 그의 작품은 그의 끝없는 노력과 실험성, 도전정신의 산물이다. 여순사건의 참화를 피해 순천 자은마을로 피신해 와 허씨 집성촌에서 자란 허 작가는 “먹고 살기도 어려웠지만 명심보감 등 한문학과 서예를 공부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다”며 “장학생이 되기 위해 다른사람보다 10배는 더 노력했다”고 말한다. 5세부터 서예를 접한 작가는 중학교때 국전에 도전할 정도로



허희태 작 ‘심장의 울림’

접촉에 집중하고 있다.

허 작가는 “일찍이 영혼과 마음을 담은 먹, 번짐의 미학 등은 서양의 어떤 기법이나 재료에 따라올 수 없는 독창적 특성인 만큼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세계인들과 만나고 기억되는 작가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허희태 작가는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세계인들과 만나고 기억되는 작가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허희태 작가는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세계인들과 만나고 기억되는 작가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허희태 작가는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세계인들과 만나고 기억되는 작가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기량을 인정받았고 전국 서예대전을 휩쓸었다. 스카우트된 학교(금호고)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개인전을 할 정도로 촉망받는 서예 인재였다. 20대 도전 초대작가, 30대 국전 대상, 40대 국전 등 심사위원 등 서예로 그의 인생이 아쉽게나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 허희태 작가는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세계인들과 만나고 기억되는 작가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허희태 작가는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세계인들과 만나고 기억되는 작가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허희태 작가는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세계인들과 만나고 기억되는 작가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세상에 대해 탐구하는 자세가 좋은 작품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허희태 작가는 “일찍이 영혼과 마음을 담은 먹, 번짐의 미학 등은 서양의 어떤 기법이나 재료에 따라올 수 없는 독창적 특성인 만큼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세계인들과 만나고 기억되는 작가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이모그래피는 감성을 뜻하는 영어 이모션(emotion)과 표현법이라는 그래피(graphy)를 합성한 단어로 감성, 사람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미국 버지니아주 올드 도미니언(Old Dominion University) 켈 데일리 교수가 명명한 새로운 분야다. 이모스컬처는 역시 이모션과 조각을 뜻하는 영어 스킵처(sculpture)의 합성어다.

조탁민기자 mdeung@srb.co.kr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 삶을 노래하는 할머니들

영화 ‘시인 할매’

광주독립영화관 오늘 개봉

삶을 노래하고 세월을 읊는 할머니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영화와 관객들을 맞이한다.

곡성 입면 서봉리 탐동마을 할머니들의 일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영화 ‘시인 할매’가 13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개봉한다.

‘시인 할매’는 한글을 깨우친 할머니들이 시(詩)를 쓰고 시집을 낸 이후의 일상을 담고 있다.

영화의 배경인 곡성 입면 서봉리는 섬진강 인근의 마을이다. 영화 속 할머니들에게 60년 넘게 지내온 삶의 터전이다.

이곳의 할머니들이 시집 출간 소식을 전하기까지, 시작은 작은 부분에서 이뤄졌다.

‘길잡이 도서관’의 김선자 관장이 책을 겨우로 찾는 할머니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한글 수업을 시작했다. 이어 시를 쓰도록 유도한 결과 ‘시집살이 시집살이’라는 시집이 완성됐다.



한글을 깨우친 할머니들이 시(詩)를 쓰고 시집을 낸 이후의 일상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영화 ‘시인 할매’ 스틸컷.

1년이 넘게 이 과정을 지켜본 이종은 감독은 할머니들의 일상을 영상에 담아 영화 ‘시인 할매’를 만들어냈다.

영화를 연출한 이종은 감독은 “2016년 할머니들의 시집이 나왔다는 뉴스를 접하고 호기심이 생겨 책을 구입해 읽었다. 할머니들이 쓴 시가 품고 있는 감성이 남달라 깜짝 놀랐다”며 “기성 시인들이 주는 감동과는

전혀 다른 결의 감동을 받았고 시를 쓴 할머니들이 궁금해서 할머니들을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화는 벽에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시를 적는 모습 등 할머니들의 일상을 골자로 이야기하고 있다. 삶의 애환이 담긴 할머니들의 시를 한 편 한 편 소개하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함께 담긴 곡성의 사계절 풍광은 텃

이다. 개봉에 이어 15일 오후 7시 상영 후 영화를 연출한 이종은 감독과 관객들이 대화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날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는 선착순으로 할머니들의 시(詩) 124편이 담긴 ‘시집살이 시집살이’를 증정한다. 문의 062-222-1895.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신철 ‘With You’ 전 25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18년만에 지역서 선보이는 청산도 화가 ‘사랑’

‘기억풀이’ 연작 회화·입체 작품 20여점 선배

동화 속의 한 장면과 같은 그림에 한 쌍의 남녀가 등장한다.

두 남녀는 때론 오랜 연인처럼 다정해 보이기도 하고, 때론 첫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설렘 가득해 보이기도 한다.

따스한 분위기를 가득한 색채로 짠 단발머리 소녀에 대한 환절같은 사랑과 그리움을 캔버스에 담은 작품이 시인을 만난다. 광주 신세계갤러리는 13일부터 25일까지 완도 청산도 출신 신철 작가 ‘With You’ 전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그림을 가득한 연인을 동화적으로 표현한 신 작가의 회화와 입체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신 작가가 고향에서 18년만에 벌이는 개인전이다.

신 작가는 양평 중미산 기슭의 작업실 ‘수류산방’에서 사랑과 그리움의 정서를 담은 ‘기억풀이’ 연작을 선보이고 있다.

산과 바다가 푸르른 청산도에서 태어난 신 작가는 섬에서 보낸 유년의 추억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 곳에는 작가가 사랑하고 흠모하던 단발머리 소녀가 있고, 지금 그의 그림에는 단발머리 소녀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 스며져 있다. 그 소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듯 붉은 매화나무 아래 서있기도 하고, 한 소년 앞에서 두 손을 꼭게 모은 채 수줍은 표정을 짓고 있다.

때론 연인이나 부부처럼 꼭껴안은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들만의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신 작가가 선보이는 ‘기억풀이’ 연작은 단순히 지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닌 그림 속 단발머리 소녀의 표정과 같이 때론 새침한 듯 보이지만 순수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든다.

원광대 미술과를 졸업한 신 작가는 개인전 40회와 800여회의 단체전 및 아트페어에 참여한 지역을 대표하는 중진 작가다. 지난 2016년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정예작가상을 수상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신철 작 ‘사랑여행’

“임방울국악교실”서 우리 소리 배워요”

18일부터 6개 분야 수강생 모집

임방울국악진흥회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임방울국악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방울국악교실은 매년 임방울국악진흥회가 진행하는 전통국악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다음달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6층 ‘판소리시민체험

장’에서 열리며 분야는 판소리, 고병, 민요, 한국무용, 장구, 가야금병창 등 6개다.

각 강좌별 20명 이상 모집, 주 1회 2시간씩 수업을 골자로 한다.

김중재 임방울국악진흥회 이사장은 “임방울국악교실이 국악인구 저변 확대와 국악을 몸소 체험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